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

박영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안에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전군이 언제나 격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백두산훈련열풍은 백두의 공격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게 하는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이며 그 어떤 대적과도 싸워이길수 있게 하는 백승의 기치이다.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굳건히 다지고 그 위력으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시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군에 백두의 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인민군대가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일격에 소멸할수 있는 무적의 전투력을 다지는것을 최대의 군사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하며 군사기술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전군에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지휘관들과 참모일군들을 높은 작전지휘능력을 가진 현대전의 능수로, 대담무쌍한 공격방식과 완벽한 실전능력을 겸비한 싸움군으로 키우는데 큰 힘을 넣으신것이다.

지휘관의 높은 작전지휘능력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더우기 현대전은 싸움마당에서 림기응변하며 신묘한 전술을 쓸줄 아는 용감하고 슬기로운 지혜와 강의한 담력과 배짱을 가진 진짜배기지휘관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모든 지휘관, 참모일군들이 현대전의 어렵고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자기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그들의 군사적자질과 지휘능력을 높이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2월 어느 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를 찾으시고 작전연구실과 사격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지휘관, 참모부일군들의 훈련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이곳 대련합부대의 지휘관, 참모부일군들은 위대한 선군령장을 받드는 지휘관들의 자격은 싸움준비실적에 있음을 깊이 자각하고 훈련목표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세우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우리 식의 전법,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경험, 현대전의 교훈을 깊이 연구하면서 유능한 작전가, 싸움군으로 튼튼히 준비해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련합부대에서 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법을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군사연구실을 훌륭히 꾸리고 작전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모든 지휘관들을 현대전의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능숙히 조직지휘할수 있는 작전전투조직과 지휘능력을 갖춘 유

능한 지휘관들로 준비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휘관, 참모부일군들이 머리를 쓰면 우세한 적을 이길수 있으며 머리쓰기훈련은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격전전야에 지휘관과 참모부가 벌리는 적들과의 날카롭고 예리한 두뇌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두뇌전의 형식과 방법에서는 고정격식화된 틀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자각하고 훈련을 싸움맛이 나게 진행하여 부대의 작전전투임무를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과학적으로 능숙히 조직지휘함으로써 그 어떤 전투임무도 가장 훌륭하게, 가장 완벽하게 수행할수 있는 유능한 지휘관, 만능의 작전가들로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 백승의 지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에 매혹된 인민군지휘관들은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그 어떤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작전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만능의 전법과 전술, 대담무쌍한 공격방식과 완벽한 실전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군사작전지휘관들로 준비되게 되였다.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전군에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우리 당의 군사사상과 전법으로 무장하고 백승의 지략과 경험을 소유한 펄펄나는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하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에서 군부대를 찾으실 때마다 군인들이 진행하는 훈련을 빠짐없이 보아주시면서 전군에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다.

모든 군인들이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생사를 판가리하는 적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할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들은 총포소리가 나지 않을 때에도 언제나 싸움마당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을 그 어떤 전투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펄펄나는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군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1(2012)년 1월초 오중훈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105땅크사단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적이 제일 많이 어려있는 군부대들중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사단의 장병들이 우리 땅크무력강화발전에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로고를 가슴 깊이 새겨안고 사단을 쇠소리나는 싸움군들의 집단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곳 부대의 훈련과 전투동원준비실태에 대하여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단의 장병들이 적들의 침략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긴장성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훈련과 싸움준비완성에서 박차를 가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고 평시에 훈련을 잘하여야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시에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사명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훈련으로 밤을 새우고 새날을 맞는 혁명적훈련기풍,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난관극복정신으로 싸움준비를 완성하고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정상적인 동원태세를 갖추어 언제나 발

사직전과도 같은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은 인민군장병들을 그 어떤 어려운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주체전법과 전투조법을 체득한 만능의 진짜배기싸움군들로 준비시키는 자양분으로, 원천으로 되였다.

그러기에 인민군장병들은 어제날 쓰디쓴 참패를 망각하고 침략전쟁도발책동에 미쳐 날뛰는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을 죽탕쳐버릴 복수심을 안고 맞받아나가는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그 어떤 어려운 정황이 조성되여도 능숙하게 처리해나갈수 있는 우리 식의 군사전법과 전투행동방식을 완비해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훈련이 철저히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주체전법에 기초하여 전투에서 실지 써먹을수 있는것을 많이 배워주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군사연구실과 군사강의실, 실전에 대비할수 있는 각종 훈련기재들을 잘 갖추어놓고 우리 당의 군사사상과 주체전법의 요구대로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드세차게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안의 모든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과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0돐, 조선인민군창건 80돐을 높은 전투정치훈련성으로 맞이할 충정의 열의를 안고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땀배인 군복이 마를새없이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강도높이 진행하여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만능의 싸움군으로 준비해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1(2012)년 1월 중순 어느 한 인민군군부대를 시찰하시고 군부대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법과 전투행동방식, 전투조법들을 깊이 연구하고 실전에 구현하기 위한 훈련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현대전의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펄펄나는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준비시키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부대지휘관들에게 총잡은 군인의 첫째가는 임무는 훈련을 잘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훈련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하며 특히 군부대군인들을 그 어떤 전투임무가 맡겨져도 자립적으로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만능병사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주체101(2012)년 3월초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 부대에서 생동한 직관교육과 실천교육, 동작교육을 충분히 줄수 있는 기재들을 갖추어놓고 싸움맛이 나는 훈련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부대군인들이 잠을 자도 꿈을 꾸어도 싸움마당을 안고 살며 백두의 훈련열풍속에서 그 어떤 전투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펄펄나는 일당백의 싸움군, 만능의 병사들로 억세계 준비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인민군부대들에서는 훈련을 철저히 우리 식으로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인민군장병들이 그 어떤 전투임무도 능히 수행할수 있는 우리 식의 전법과 전투조법,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펄펄나는 일당백싸움군으로 자라났으며 우리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천백배로 다져지고 그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식에 따르는 훈련이 진행되고 적들

의 기도를 철저히 짓부셔버릴수 있는 주체전법들이 새롭게 연구완성되어 훈련에 구현됨으로써 인민군장병들은 백전백승의 전략과 전술, 대담무쌍한 공격방식과 완벽한 실전능력을 겸비한 만능의 싸움군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건군사상과 업적을 계승하시여 우리 인민군대를 최정예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